

### 행복한 책임기

유근호의 '만적1·2' <이유결>

인간이 스스로에게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 그 때야 비로소 인간은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며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팔아먹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 영혼은 한 개인에게 고유하고 유일하며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집단적일 수 없기에 철저히 개인적이다. 끊임없이 자유를 지향한다. 시간도 영혼을 구속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영혼이 억압 받았을 때 일순간 침묵과 복종으로 위장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터지고 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814년 전, '만적의 난(亂)'이다. 만적은 1198년 초여름, 비웃들에 묶여 예성강 바닥에 가라앉았다. 최충헌(작품에서는 '김풍'

초적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두려움 너머 죽음까지 불사했던 게 아닌가.

죽은 후에도 만적은 우리 역사 저편에 종종 등장했다. 3·1운동과 4·19혁명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까지도... 영혼은 복제되지 않고 유전되지 않지만 그 존재를 믿고 싶어 하는 성향(disposition)이 인간의 DNA에 '자유'를 각인시켰다.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유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영혼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성향을 적극적으로 발현



###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지향한다

으로 나온다.)의 사보비였던 그와 미조이(감마라)를 중심으로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비문서(노비는 고조상 때부터 있었지만 고려 때 들어와서 법제화되었다.)를 불태워서 이 나라를 노비 없는 나라로 만들자고 결의하다가 결국은 밀고자 때문에 실패한다. 신종(神宗)원년, 최충헌(崔忠獻)의 집권 시절 때다.

만적의 저항은 100여 명의 노예와 함께 수장(水葬)된 것으로 끝난 때를 패배의 역사, 한 페이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고팔았고 자식에게 상속했으며 뇌물이나 선물로 주고받았다. 죽이고 살리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였다. 그야말로 가족보다 못한 영혼 없는 짐승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저항은 당시 통치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서 깊은 영혼에 자리했던 원

시각 결과로서의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영혼도 있다. 인간의 DNA는 저항과 순종, 발현과 침묵의 모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심지어 순종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유일 수 있다.

대사(大事)를 치른 다음 날,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했던 최약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했던 그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 지는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극과 극의 자유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만적의 난'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지 않을까.

만적의 난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치밀한 계획 없는 무모한 분노와 열정이었다. 조직이 엉성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결속력이 떨어졌다. 영혼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시간을 두고 추후를 모색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강남구·김진화·김해성·리일천·박구환 백준선·이준립·전현숙·정용규·고근호

'김원중의 달거리-참여작가 그림전' 26~31 빛고을시민문화관

## 마음을 울리는 노래 마음을 채우는 작품들

김원중의 달거리'가 올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했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참여작가 그림전'은 1년 동안 달거리 공연의 무대를 장식했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무대를 만들어온 작가들은 매달 '눈 내리고 봄 오다', '가을, 잊혀진 사랑에 대하여' 등 달거리 공연의 주제에 맞게 20여점씩 작품을 제작했고, 평면 회화를 영화 스크린 크기의 대형화면에 담아 관객들이 마치 갤러리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감동을 전달했다.

이번 전시회의 참여작가들은 강남구·김진화·김해성·리일천·박구환·백준선·이준립·전현숙·정용규·고근호씨로 서양화, 한국화, 관화, 사진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된 작품들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지난 2003년 첫 선을 보인 후 휴지기를 거치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김원중의 달거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옥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음악회다. 지난해에는 수익금 1250만원을 북녘어린이영양 빵 공장사업본부에 기부했고, 올해도 정성을 모으고 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무대는 '사랑하면 길이 보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터트대감 김원중씨를 비롯해 보혜미안 소울(피아니스트 이상록, 소프라노 유영민), 국악인 윤진철, 샌드 애니메이션의 주홍, 퍼포머 김광철, 느티나무 밴드(신현정·조성우·박현정·송기정) 등 1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른다. 또 지역의 새로운 뮤지션을 소개하는 '졸달 신인 소개' 코너에는 밴드 우물안 개구리가 출연한다.

이번 달의 특별 초대 손님은 생황 연주자 김효영씨다. 국악기 가운데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은 신라 이

전부터 존재한 우리 전통악기로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악기다. 마지막 공연의 무대미술은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맡았다. 공연의 입장료는 따로 없고, 관람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www.kimwon-joong.com.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김효영



서양화·한국화 등 30여점 전시 판매 수익금 일부 후원금으로

31일 '사랑하면 길이 보여' 공연 생황 연주자 김효영씨 특별초대

### 넉넉한 고향인심 가득 '남도 5일장'

문화통, 역사·특산물 담은 전통시장 가이드 발간

광주·전남 지역 5일장과 전통시장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인터넷신문 문화통은 한국지역문화콘텐츠 개발원과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5일장, 전통시장 등 114곳의 역사, 특산물, 식당 등의 정보를 담은 '남도의 5일장'(15×21.5cm)을 발간했다.

지역 내 5일장과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한편, 시·군지와 사료집에 대한 조사와 속칭 시장 터트대감들과의 인터뷰를 거

쳐 시장의 옛 모습과 현재를 함께 담았다.

세태 변화에 따라 달라진 시장 풍속도와 특산물, 장터식당을 세밀하게 수록, 시·군마다 5~6개의 장이 섰던 과거와 달리, 대부분 2~3곳만 서는 현재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1개면에서도 2개의 장이 서는 주말면의 주암장, 참촌장 등도 소개했다.

한편, 문화통은 '남도의 5일장'을 광주·전남지역 행정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의 062-226-1000. /김지을기자 dok2000@



### 2013 광주폴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3년 광주폴리' 운영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3명으로 선발되며 1년간 광주폴리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벤트 기획, 국내외 폴리 투어 및 견학 업무, 시설물 순찰, 안전점검, 훼손방지 활동 등 유지 관리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로, 서류 전형 및 면접을 거쳐 2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062-608-421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 환

**두층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i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주등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금수장관광호텔**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